

## 대구지부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대구지부는 2007년 3월 8일 대구 플라워웨딩 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06년도 총수입 264백만 원, 지출 150백만 원, 이익 114백만 원의 결산을 의결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공로가 큰 하진규, 이원오 회원이 협회 중앙회장의 공로패를 수여했다.

## 전북지부

전북지부가 전국 지부 중 처음으로 지부 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06년 11월 6일 준공식을 성대하게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석구 중앙회장이 참석하여 영농조합의 설립을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 지부소식 스케치

## 대구지부 총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대구지부는 2007년 3월 8일 대구 플라워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06년도 총수입 264백만 원, 지출 150백만 원, 이익 114백만 원의 결산을 의결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공로가 큰 하진규, 이원오 회원이 협회 중앙회장의 공로패를 수여했다.

## 협회 중앙회장의 격려사

오늘 대구지부 정기총회를 맞아 전통과 역사가 깊은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대구지부 정기총회에 대구지부 회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대회를 치르시는 이병진 지부장님께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귀빈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부를 후원해주시어 고맙습니다.

대한두채협회가 설립 된지 어연 14개성상이 돼 갑니다. 돌이켜 보면 많은 격동기를 겪어 오면서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여러분들께서 묵묵히 협회를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두채협회는 근년 들어 사회발전에 따른 많은 제도적 개선 요구를 협회로서는 최선을 다 하였으나, 회원 여러분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무엇보다 우리 회원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대구지부는 1965년 대구두채조합으로 출발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지부이며, 이병진 지부장님을 위시한 대구회원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지부 중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는 지부입니다. 대구지부가 오늘의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부회원님들께서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대구지부 발전에 솔선수범하여 두채산업을 발전시켜온

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두채산업에 애정을 갖고 국민건강과 전통식품 발전에 사회적 공동책임을 충실하게 지켜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의 기능은 두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적합할 뿐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정기총회를 맞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는 우리 두채산업 발전을 위하여 범용적 혜택이 될 수 있는 분야의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니 앞으로는 가입회원과 비 가입회원 간에 차등이 되는 사업위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협회도 장족의 발전을 가져와 중앙회 사무실도 우리의 힘으로 마련하였고, 정부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원료 콩 도입보급도 확대하여 협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회원 여러분의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맞아 공로패를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회원 여러분의 사업번창과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7년 3월 8일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회장 송 석 구



# 전북지부가 영농조합법인 출범시켰다

전북지부가 전국 지부 중 처음으로 지부 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06년 11월 6일 준공식을 성대하게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석구 중앙회장이 참석하여 영농조합의 설립을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 협회 중앙회장의 격려사

오늘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전북지부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신 내·외빈 및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회장으로서 성대한 준공식에 격려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북지부는 이용운 지부장님의 지도하에 54명의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친목을 도모함으로 전국의 17개 지부 중 처음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전라북도 내 우리농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어 시상을 받으신 김군식 회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쓰시고 계시는 콩나물종자 콩의 수입이 국가 간 자유화 물결이 몰려 닥치고 있고, 시장접근물량으로 정부에서 저관세로 수입하는 국영무역은 품위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로서도 이에 대응하여 자금력을 기르고 외국산지 정보도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전북지부의 영농법인화는 바람직한 발전입니다. 우리 회원농가가 제일 필요로 하는 질 좋은 종자 콩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회도 노

력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익년 2월 달에 도입되던 신곡을 대립과 소립 각 천 톤 도입 발주하여 10월 중순 드려올 예정이었으나, 입찰된 업계의 중국현지 발아율 저하로 중립 3백 톤만 신곡으로 드려오고, 대립 1천 톤, 중립 1천 톤, 소립 2천 톤의 신곡이 11월말 공급을 위하여 공사와 협회가 합동으로 중국 현지 검수를 나가 있습니다. 또한 못 드려온 1천 7백 톤을 추가로 긴급수입발주하도록 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협회는 회원농가가 쓸 수 있는 양질의 종자 콩을 드려오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내년도 도입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협회 회원농가가 필요한 콩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사도 적극 노력하고, 협회에서는 회원이 원하는 사항을 즉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북지부 공장 준공식에 축하를 드리며, 오늘 시상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번성하시길 빌며, 간단하나마 격려사로 같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8일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회장 송 석 구